

노동자의 피로 쓰여진 노동절 역사

19세기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이 성장할 수록 노동자들은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시달렸습니다. 1886년 5월 1일 참다 못한 미국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합니다. 5월 3일 경찰은 파업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고 5월 4일 경찰의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모인 헤이마켓 광장에 의문의 폭탄이 터집니다. 경찰은 그 책임을 노동운동 지도부에게 씌워 졸속 재판으로 사형을 시킵니다. 살기 위해 저항한 노동자들을 정권과 자본이 살해한 사건이 오늘날 전 세계 노동자들의 기념하는 노동절의 시작입니다.

한국 노동절 역사는 독재정권과 어용노조가 훼손시킨 세계 노동절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는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고,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노동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정신과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여러 쉬는 날중의 하루가 아닙니다. 정부의 기념행사에 동원되고, 연예인 축하 공연을 관람하는 날도 아닙니다. 노동절 하루만큼은 모든 노동자가 단결과 연대의 이름으로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요구하고 싸우는 날입니다. 노동절이 노동절로 불리워도,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열사 정국에서 맞는 2026년 노동절

2023년 노동절,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 양회동 열사가 법원앞에서 목숨을 끊으며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 투쟁을 선포합니다. 올해 노동절도 열사 정국속에 놓여있습니다.

국내 최대 편의점 CU의 물류배송은 BGF리테일(CU 운영사)→BGF로지스(물류 자회사)→BGF로지스가 운영하는 지역 물류센터→물류센터와 계약 맺은 운송사→운송사와 계약 맺은 배송기사로 이어지는 하도급 다단계 구조입니다. 조합원들은 하루 13~14시간, 한달 25일(월 평균 325시간) 장시간 근무와 야간노동, 휴무 강제반납, 하루 최대 90만원의 대차비용(휴가날 대체기사를 부르는 비용), 순소득 월 300만원 불과한 임금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BGF리테일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한다며 올해 1월부터 7차례 원청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청은 거부합니다.

이에 화물노동자들은 4월초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사측은 경찰의 비호아래 파업파괴를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합니다. 4월 20일 대체인력 차량을 막아선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칩니다.



투쟁하는 노동절, 화물노동자를 지키자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투쟁과 원청교섭 투쟁을 선봉에서 싸워왔습니다. 윤석열 정권때 온갖 극심한 탄압을 겪고도 민주노조를 지키고 투쟁중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 설립필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부는 화물연대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국민의 힘과 보수언론은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작동되지 못해서 벌어진 사태임에도 말입니다. 원청자본은 교섭거부→파업시 대체인력과 공권력 투입→손배 청구→노조 탈퇴 유도→어용노조 설립 등의 수순을 모델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키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물연대 투쟁본부는 전국 CU물류거점 봉쇄 지침 등 투쟁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원청 BFG리테일이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투쟁의 강도를 높힐 계획입니다. 올해 민주노총 노동절 투쟁의 핵심기조는 '원청교섭 쟁취'입니다. 투쟁하는 노동절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노조는 5월 1일 어디로 가야하는지 명확합니다.

충남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애초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장소를 바꿔 진천 CU물류센터로 향합니다. 수도권 노동자들은 강남 CU본사로, 영호남권 노동자들은 서광석 열사가 숨진 진주 CU물류센터로 향합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노동절을 맞아도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단결과 연대의 마음은 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온전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원청 자본을 상대로 싸우며 파업투쟁을 사수하다 운명을 달리한 화물연대 서광석 열사의 뜻을 되새깁시다. 동향 & 전망